관심의 경제학과 천국

(마17:9-13)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관심의 경제학과 천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피터 드러커와 톰 프리드먼과 함께 세계 3대 경영전략 아날리스트로 꼽히는 토마스 데이븐포트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이 함께 저술한 책 중에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72년, 그러니까 15세기 말엽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도서관인 캠브리지 대학의 퀸스칼리지 도서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 도서관의 장서가 199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199권에 기록된 모든 정보의 양이 요즘 뉴욕타임즈의 주말판에 담긴 정보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이에요.
뉴욕타임즈의 주말판에 담겨진 정보가 1472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여겨졌던 캠브리지 대학의 퀸스칼리지 도서관의 장서 199권에 담겨있는 정보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깁니다.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는 계속해서 정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은 2006년도인데 1999년도 통계를 인용합니다.
미국에서 1년간 책이 6만 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는 약 30만 종의 책이 발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만 1년에 잡지가 만 팔천여 종이 발간되는데 이 잡지의 총 페이지를 다 모아보면 2250억 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전 세계에서 40만 종에 달하는 학술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관심의 분배문제를 관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심을 이해하고 경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경영한다는 것은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나는 무엇에 관심을 투자할 것이며, 그렇게 내 관심을 투자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획득하느냐? 이게 바로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관심경영이 돈을 벌려 하지 말고, 관심을 벌어야 되는데, 관심을 벌면 돈도 따라오게 돼있는데, 내가 내 마음의 관심을 어디에 투자해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모아올 수 있겠는가?
이것에 경영의 핵심적 의미를 두고 새롭게 경영을 도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ttention economy, attention management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대사회에서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실제 화폐보다 더욱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화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관심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돈을 그 사람들의 주머니로부터 벌려고 하는 것처럼 관심을 벌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관심을 버느냐?
'내 관심을 올바르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주창한 이 관심경영은 예수님께서 이천 년 전에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변화산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변화산 체험은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관심경제학의 일환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획득하느냐 하는 관심경영학의 마인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이슈로 만드신 것이에요, 천국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까지 이 변화산 체험은 예수님의 관심경영의 의도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그 누구도 관심을 천국에 두는 자가 없었습니다, 실재의 천국에.

심리학적인 마음의 평강, 또 주관적인 - 애인과 함께 있기만 하면 자장면 한 그릇이라도 만족한다는 것 같은 - 이런 심리학적 측면의 천국이 아니라, 실재 천국, 하나님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지금 승천해 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거하는 그 실재 천국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메시아라고 믿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천국에 대해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였습니다.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였으면 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게 바로 관심의 경영학을 추진해 나가신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화산 체험에 대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이건 성경을 읽으면서이건.
이게 바로 관심의 경영학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는 결코 만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이 땅의 세상 바깥에 있는 천국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되는 방법은 변화산 체험에서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산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졸다가 - 누가복음에 나오기를 - 졸다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는 것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빛의 body가 돼버립

니다, 발광체와 같은 몸으로 변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이 세상 전체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에서 관심 바깥으로 몰아낼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천국에서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믿음이 아직 안 생긴 상태입니다.
믿음은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성령에 사로잡히면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식을 넣어주신 것이고 그 고백의 단계는 마귀도 동참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변화산 체험 같은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몸으로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천국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육체의 눈을 통해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의 느낌은 똑같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위한 감각기관이 되어 주셔서 성령님이 천국을 보게 해주셔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갖는 마음은 똑같이 갖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관심에 두게 하려고, 관심거리로 만드시려고.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를 않으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쫓아다녀도 관심은 이 세상일에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관심이 주로 어디에 쏟아지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변화산 체험을 관심경영의 극단의 처방으로 해내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상황 앞에 천국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천국이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일이 실제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없어질 단어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는 단어도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아직도 자기사랑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맨 날 졸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변화산 체험을 볼 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요, 예수님을 좋아하되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천국에서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빛의 모습이 예수님의 빛으로 이루어진 그 body가 우리에게 보여 질 때,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잊을 만큼 예수님께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매력에 취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믿음도, 사랑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관심을 두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도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인격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오직 필연성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제 천국의 모습을 보면 필연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이 –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관심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꼬나 박혀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너무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대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관심경영의 일환으로 변화산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세상에서 베드로가 이루려고 했던 꿈이 얼마나 크고 비전이 얼마나 컸겠는가,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러나 하늘나라를 보면 다 잊어버리고 관심 밖으로 물러나게 돼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기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천국에 비하면 관심거리도 아닌 것이고 관심을 투자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갖게 되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며, 몸으로 '나다' 하며 살고 있는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꽃피울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이 관심거리도 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 그 어떤 소중한 일, 그 어떤 절박한 일, 그 어떤 시급한 관심거리일지라도 천국이라는 관심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을 마음으로 느끼게 될 때는 네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갖게 되는 관심거리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천국이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을 좀 갖지?'
이 뜻을 가지고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천국을 체험한 그 방식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니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오해해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시점까지 미뤄두십니까?
죽음까지 같이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 자신까지도 완전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은 천국을 성령께서 베드로가 느낀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마지막 지점 십자가까지 가는 동안 너희도 거기까지

따라와야 천국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그 전에 말해버리면 기독교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될 테니까 말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 사무엘도 아니고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들 중에서는 아브라함 이후 유일하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자예요.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엘리야라는 인격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적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올 거라는 얘깁니다.

예수님 앞에 선구자로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왜 엘리야적 사명입니까?

엘리야만이 천국을 올라간 자이니까, 살아있는 몸으로.

그러므로 몸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관심거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살아서 천국으로 갔던 그분이 다시 오면 천국이 관심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엘리야적 사명을 수행할 때 일성(一聲)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왜 관심을 이 땅에 대해서만 갖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이슈가 뭡니까?

천국이라야 됩니다, 천국.

천국을 갖기 위해서 소유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산 체험 기사를 통하여 관심을 경영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관심을 경영합니까?

자,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는 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경영해야 돼요.

자식문제, 돈 문제, 건강문제, 사업문제, 이런 것들에 다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돼요.

관심을 경영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경영합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그 마음을 뺏기고 있는 관심거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지금 내 마음을 뺏고 있는 세상의 관심거리로부터 떼 내야 돼요.
이게 관심경영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천국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인생, 그러니까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천국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자, 삶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가자!'
왜냐하면 내 삶에 대해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주님의 관심거리예요.
내 관심거리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관심경영의 귀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국만 관심이 아닌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산 체험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의 관심을 경영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